



2025년 1월 19일(제1230호) 연중 제2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잔치에 필요한 것”

잔치에서 음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잔치의 음식을 보고 그 잔치를 평가합니다. 축하의 마음을 가득 담고 왔더라도, 잔치의 음식이 시원찮으면 안 됩니다. 잔치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들도 있지요. 진수성찬으로 차려도 꼭 있어야 할 음식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잔치는 혼인 잔치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는 풍요로움, 부부애, 자손 번영의 상징으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에게 큰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상, 그것은 잔치가 아닙니다. 비극입니다. 그토록 중요시하는 혼인 잔치에 큰 상징으로 여기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는 더 이상 잔치가 아닙니다. 기쁨과 행복은 없습니다. 잔치를 주관한 신랑은 너무나도 큰 위기 앞에 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첫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끔찍한 비극을 다시 잔치로,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잔치는 끝이 났을 것이고, 기쁨과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그분이 계셨고, 그분은 기꺼이 신랑에게 잔치의 기쁨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아니, 더욱 넘치도록 해주셨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함께하신다면, 나의 삶을 기쁨의 잔치로 꾸며주실 것입니다. 절망의 위기와 포기 유혹이 나를 뒤덮더라도 주님과 함께한다면, 그분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산다면, 그분은 결국 물을 포도주로 바꾸듯 절망과 포기를 희망과 기쁨으로 되돌려주실 것입니다. 카나의 혼인 잔치의 신랑은 사실 별로 한 게 없었습니다. 어쩌면 포도주가 떨어졌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주시고, 잔치의 기쁨을 지켜준 것은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신랑이 한 것이라고는, 혼인 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할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초대했기에 잔치의 기쁨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내 삶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잔치의 기쁨으로 축제의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잔치에 꼭 필요했던 것, 빠지지 말아야 했던 것은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잔치에 꼭 필요했던 것은 주님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많은 것이 필요해 보이지만 결국 가장 필요한 것,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내 삶을 잔치로 지켜내 주실 것입니다.



김항래(대진인드레이) 신부
인진해군(인진해역방위사령부) 상당 주임

- | | |
|----------------|--|
| 제 1 독 시 | 이사 62,1-5 |
| 회 답 송 | ◎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
| 제 2 독 시 | 1코린 12,4-11 |
| 복음 권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 |
| 복 음 | 요한 2,1-11 |
| 영 성 제 송 |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동정부부 순교자 복지 이순이 루갈다 옥중편지

1. 이순이(李順伊) 루갈다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치명하는 일이야말로, 미천하고 쓸데없는 자식을
진실되고 보배로운 자식으로 만드시는 것이니,
천만 번 바라오니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 너그러이 참으십시오.

이 세상을 꿈같이 여기시고 영원한 세상을 고향으로 아시어,
아주 조심하여 순명하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보잘 것 없는 이 자식이 영원한 복락의 면류관을 쓰고
즐거운 복을 지닌 채, 어머니의 손을 붙들어 영접하여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오빠(이경도, 가롤로)가 다시 판결을 받았다 하니,
진실로 얼마나 감사한 주님의 은총입니까?
주님께 우러러 늘 감사드리고, 어머니가 복 받으심을 찬송합니다.

경이 형제(이경중, 이경언)와 형님 형제(친언니, 올케)에게 의탁하시고
우리 남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계속>

『동정부부 순교자 복지 이순이 루갈다 옥중편지』 발췌, 진주교구 지명지신성지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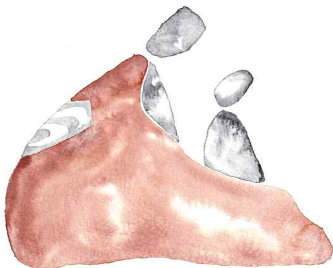
빨간 망토

나를 마지막까지 보호하고,
저 하늘까지 데려다 줄 것 같은
그 든든한 영웅.

철이 들며,
빨간 망토가 아닌,
저 십자가에 마음이 갑니다.

각종 '맨'들이 나와도,
내게는 빨간 망토의 그가
영원한 영웅으로 남아 있지.

님의 삶에,
내가 갈 길에.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기사의 혼인잔치



파올로 베로네제(Paolo Veronese), 1563년경 제작
캔버스 위 유화, 6.77×9.94m / 루브르 미술관, 프랑스

혼인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는 그림 왼쪽에 있는데 신부는 우리를 응시하고 있고, 신랑은 하인이 방금 따른 듯한 포도주를 받아 들려고 하는 중이다. 그 앞에는 술 단지가 비었음을 주인에게 보여주는 하인이 있다. 신부 옆으로는 포도주가 없다고 항의하는 듯한 인물(혹은 부부)이 보이고, 그 옆에는 빈 포도주잔에 불만인 듯한 손님들도 보인다.

한편, 그림 오른쪽에는 하인이 (기적으로 변환) 포도주를 따르고 있고, 그 뒤로는 이 포도주에 놀라는 듯이 보이는 손님들이 보인다.

아파트나 원룸보다 큰 대형 크기인 이 작품은 베니스의 산지오르지노 수도원의 식당 한 면에 걸려 있었으나,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원정 때 프랑스 파리로 가져오게 되어 현재는 프랑스 파리 루브르 미술관에 걸려 있다. 총 132명이 출연하는 이 작품의 중앙에는 예수님과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요청하시는 성모님(두 분 모두 후광으로 식별 가능하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앞에는 베니스의 주요 화가들이 혼인 잔치의 흥을 돋우는 곡을 연주하는 연주자로 분해 그려져 있다.



신랑과 신부



△ 양고기를 지르는 일꾼
▷ 기적으로 변환 포도주를 따르는 하인
예수님과 성모님, 연주자들 ◁



100여 명이 넘는 하객과 연주자, 하인과 뒤쪽 부엌에서 일하는 일꾼 및 동물들이 그려진 이 작품은 각자가 맡은 역할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예수님 뒤쪽에 보이는 일꾼은 양고기를 큰 칼로 자르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수난을 상징한다. 부엌에서 고기를 자르고 요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은 정작 메인 요리(고기)가 아닌 디저트(견과류와 과일)를 먹고 있고, 연주자들 앞에는 모래시계가 놓여 있는데, 이런 불일치성은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의 분리, 그리고 인간의 죽음에 대한 경고를 함축하고 있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주일: 신신대 김혁민 신부

◆ 교구장 등장

- 교구민을 위한 교구장 집전 미사
때·곳: 1월 19일(주일) 10:3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국장회의

때·곳: 1월 21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신앙 회복과 성장을 위한 건진성사의 해" - "사랑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나의 종이 될 것이다." (사도 1:8)